

이슈브리프 845호  
(2026. 5.22)

## 2026 베이징 총리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제845호

장세호 sohill@inss.re.kr



## 국문초록

2026년 5월 20일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 회담은 미중 정상회담의 직후 개최라는 시기적 우연과 맞물려 다극적 세계를 향한 양국의 전략적 연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 외교 의식으로서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양국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서로를 “전략적 버팀목”으로 규정하고,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과 연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화려한 외교적 수사의 이면에 자리 잡은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의 타결 불발은 중러 관계의 또 다른 냉혹한 현실을 투영한다. 이 사안을 통해 중러는 대미 공동 전선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도 자국의 중요 이익이 걸린 경제적 사안에서는 철저한 실리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중러 관계의 위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단서를 드러냈다. 향후 중러 간 전략적 협력과 연대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어떤 지점에서 균열을 드러낼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주제어 : 중러 정상회담, 시진핑, 푸틴, 전략적 협력, 시베리아의 힘-2

2026년 5월 20일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5번째 방중인 이번 국빈 방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실제로 시진핑-푸틴 간 정상회담은 중러 양자 관계는 물론 국제관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16 베이징 중러 정상회담의 시기와 형식, 주요 내용, 미묘한 갈등 요소를 살펴보고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짚어본다.

### 정상회담의 시기와 형식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그 개최 시기 측면에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회담이 트럼프의 방중 수일 만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략 경쟁의 두 축인 미중 정상이 회동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시진핑과 푸틴이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했다. 관련하여, 중국이 자국의 높아진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설계한 고도의 기획이라는 주장, 또는 미중 간 화해와 공존의 현실화에 대한 푸틴의 조바심이 초래한 결과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주장들의 정합성을 지금으로써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회담과 별개로 오랫동안 준비된 중러 사이의 독자적 외교 행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5월 20일의 모든 일정에서 강조된 것처럼,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노선 수립 30주년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이하 ‘조약’) 체결 25주년을 계기로 한 것이다. 특히 ‘조약’ 25조는 그 유효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 단위로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러는 지난 2021년 1차로 ‘조약’의 5년 연장에 합의했고, 올해는 다시 5년의 시간이 흘러 2차로 연장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였다. 게다가 소위 ‘꺾어지는 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러가 꽤 오래 전에 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그 이행을 준비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점에서, 베이징에서 미중/중러 간 정상회담이 이례적으로 연이어 개최된 것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트럼프의 방중 연기가 초래한 일종의 ‘우연’이자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

작금의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의 현실과 트럼프 2.0 시기 미국의 거래주의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정상회담의 일반론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때때로 트럼프 집권기의 일부 정상회담은 마치 얼음 위를 걷듯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비쳐지곤 했다. 그러나 보통 정상회담은 양자·지역·국제 현안에 대해 실무급에서 세밀하게 조율된 결과를 각국 정상들이 대외적으로 합의·발표하는 상징적 의식(ceremony)의 자리로 여겨진다. 종종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들에 대한 최종 조율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고 이행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담 참여국 간 긍정적 합의 결과 도출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2026년 5월 베이징에서 연이어 개최된 미중/중러 정상회담은 묘한 대조를 이룬다. 2026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은 별도의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 발표 없이 종료됐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중 각각의 결과 발표에서 나타난 크고 작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할 수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그 실제 평가의 공백지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번 시진핑-푸틴 간 회담은 기존의 일반론에 부합한 상징적 의식으로서 정상회담의 형식상 전형을 보여줬다. 실제로 중러 양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두 정상 간 회담 내용과 그들 사이에서 합의·서명된 공동 성명과 선언문 전문을 공개했다.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합의·서명된 40건의 협력 문서들의 목록도 지체 없이 두 나라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5월 19일 저녁 ① 푸틴의 베이징 도착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영접, 5월 20일 ② 천안문 광장에서의 공식 환영식, ③ 배석자를 최소화한 시진핑-푸틴 간 단독 회담, ④ 대규모 실무진을 대동한 확대 회담, ⑤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과 선언문 서명, ⑥ 공동

언론 발표, ⑦ 중러 ‘교육 협력의 해’ 개막식, ⑧ 푸틴-리창 중국 총리 간 회담 ⑨ 소수 핵심 참모만을 포함한 양국 정상 간 비공개 차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푸틴이 24년 전 베이징 방문 당시 만났던 소년 평파이(현 36세 엔지니어)와 재회하는 특별한 감성적 이벤트가 곁들여졌다. 이런 점에서 푸틴이 베이징에 머물렀던 23시간 20분의 짧은 일정은 매끄러운 연출이 돋보인 국가 간 공식 외교 행사로 평가된다.

###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중러는 내용적 측면에서 이 회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을까. 양자 관계의 연대기적 성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비쳐볼 때, 이번 회담은 양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를 청중으로 한 특별한 ‘상징적 의식’이어야 했다. 시진핑과 푸틴은 오랜 불화를 뒤로한 중러 관계의 재정립이 양국민의 복리 증진, 국가 발전 비전의 성공적 달성, 대안적 다극 세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선택이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또한, 과거의 성과를 토대로 이번 회담을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선언하고 확인 받는 자리로 만들어야 했다.

이 같은 의미 부여의 결과물이 바로 「전면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협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선린·우호·협력 관계 심화에 관한 중러 공동 성명」(이하 ‘성명’)과 「다극적 세계와 신형 국제관계 형성에 관한 중러 공동 선언문」(이하 ‘선언문’)이었다. ‘성명’은 그 방대한 분량이 말해주듯 ① 양자 관계의 역사와 원칙, ② 경제·기술 협력, ③ 사회·문화 협력, ④ 글로벌 안보 ⑤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지역 정세에 관한 공통의 인식, 협력 의지, 협력 분야와 방향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선언문’은 ① 국제정세의 현황 진단, ②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위한 4대 원칙, ③ 이를 위한 양국의 지속적인 공동 비전 창출 의지 표명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성명’과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조약’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지난 30년간의 전략적 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일시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안정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출했다. 둘째, 중려는 양자 관계의 특정 영역과 범주를 넘어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그 질적 수준을 혁신적으로 높여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셋째,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현 국제정세의 혼돈과 난맥의 원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전략적 버팀목”이 돼 다극적 국제질서와 신형 국제관계의 형성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그들의 입장도 우리의 눈길을 끈다. 첫째, 중려는 한미일의 군사·안보 협력을 자신들을 겨냥한 ‘군사적 진영화’와 ‘나토의 아태지역 진출’로 규정하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의 역내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움직임이 글로벌 전략적 안정성을 파괴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안보 정책 변화를 군국주의 부활과 역내 평화의 저해 요소로 지목하면서 ‘2차 대전 결과’(전후체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공언했다. 둘째, 중려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를 한반도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서방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와 무력 시위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의 정당한 안보적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함을 강조했다. 셋째, 시진핑과 푸틴은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극동 연해주, 북한을 잇는 3자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관련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틀 내의 협력, 국경 지역 물류망 확충, 북한과의 협이에 기초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는 출해권 조율 문제 등이 언급됐다.

### ‘시베리아의 힘-2’: 양자 관계의 숨은 이면

그렇다면 중려는 모든 사안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던 것일까. 이번

회담에서 양자 관계의 숨은 이면을 보여주는 사안으로서 ‘시베리아의 힘-2’(Power of Siberia 2)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은 최근 수년간 중러 양자 관계의 가장 예민하고 내밀한 문제로 다뤄져왔던 이른바 ‘뜨거운 감자’였다. 실제로 이 문제는 이번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실무급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두 정상 간 담판의 결과에 그 운명이 맡겨져 있었던 핵심 현안 중 하나였다.

회담 직후 크렘린은 ‘시베리아의 힘-2’ “노선과 건설 방식 등 전반적 합의(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단계)가 진전됐다”고 언급했다. 이 논평은 언뜻 성과가 꽤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정확하게는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특히 5월 9일 자국 언론인과의 대담에서 푸틴의 언급을 떠올려 보면 최종 합의의 불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푸틴은 “이 문제에 대해 선불리 말씀 드리지는 않겠지만, 동료들의 보고에 따르면 핵심 사안 대부분은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는 러시아 서시베리아 야말 가스전의 천연 가스를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길이 약 2,600km의 가스관 건설 사업이다. 완공 시 연간 최대 500억 $m^3$ 의 천연 가스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초대형 프로젝트다. 타당성 조사, 가스관 노선과 건설 방식 등 기술적 계획은 이미 완료된 상태지만, 벌써 6년째 중러는 최종 합의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가 지속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공급가, 구매 물량의 유연성, 가스관 건설 대금 분담 등으로 알려졌다.

사실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 관련 중국과의 협상에서 철저한 약자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말미암아 유럽으로의 가스관 공급 판로를 대부분 상실했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시급히 대체 판로를

개척해야 했고, 사실상 그 유일한 대안은 중국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이 소위 구매자 독점 구조 하에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우위를 제공했다. 대체 공급선이 풍부했던 중국은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기존 ‘시베리아의 힘-1’ 공급가의 절반 정도의 초저가 할인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의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 위기는 동 사안을 매개로 한 양자 관계에 균형을 재조정할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의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러시아의 가치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푸틴은 거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중국 시장에 모든 연료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중단 없이 공급할 준비가 돼있다.”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중동 전쟁을 지렛대 삼아 중국에 안전한 육로 수급 수단인 자국 가스관을 선택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이번 회담에서도 최종 서명을 미뤘다. 아마도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에 대한 경계와 최종 공급가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시베리아의 힘-2’를 매개로 한 중러의 지리한 줄다리기는 그들 사이의 정치·안보적 협력에 비취볼 때 다분히 낮은 장면이다. 이 협상의 타결 불발은 대미 전선에서 중러의 전략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에서 양국 간 철저한 실리주의의 작동을 보여준다. 특히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말미암은 중러 양자 관계의 위계성 강화의 일면을 드러내는 뼈아픈 장면이다.

2026년 5월 베이징 중러 정상회담은 미중 정상회담의 직후 개최라는 시기적 우연과 맞물려 다극적 세계를 향한 양국의 전략적 연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 외교 의식으로서 성공적인 면모를 보여줬다. 양국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서로를 “전략적 버팀목”으로 규정하고,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과 연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동북아·한반도 지역에서 공통의 위협 인식에 기초한 공동의 행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앞으로 중국/러시아 모두 북한과 양자·삼자 관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난해한 고차방정식의 등장과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그러나 화려한 외교적 수사의 이면에 자리 잡은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의 타결 불발은 중러 관계의 또 다른 냉혹한 현실을 투영한다. 중동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지렛대 삼아 반전을 노린 러시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나친 에너지 의존도 심화에 대한 경계와 철저한 구매자 우위의 섀범을 유지하며 최종 서명을 유예했다. 이는 대미 공동 전선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이 걸린 경제적 사안에서는 두 국가 사이에서 철저한 실리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중러 관계의 위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단서를 드러냈다. 향후 중러 간 전략적 협력과 연대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 어떤 지점에서 균열을 드러낼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